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보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ewsletter



-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 The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is running the Counci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coordinates with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that are committed to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 논단 (Forum)

부동여산·의문대자·수적천석·유비무환

*Four Useful Proverbs for South Koreans:
Unyielding Like a Mountain, Waiting at the Gates for
the Children's Return, Water Drops Wear Away Stone,
Preparedness Forestalls Danger*



김태우 _ 통일연구원 원장

Tae-Woo Kim _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 김정은 정부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부는 거의 모든 행사 때마다 '인민경제 향상'을 화두로 던지고 있으며, '6.28 방침'이라는 것을 통해 농업에 시장경제 요인들을 도입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젊은 부인과 팔짱을 끼고 놀이공원을 방문하거나 음악회에 참석하여 미국 음악을 듣는 등 김정은의 파격적인(?) 언행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경제개선을 위한 개혁개방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잇을만하면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역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구축한 폐쇄적인 봉건왕조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가리키면서 개혁개방의 흉내만 낼 것으로 예상하거나 설령 개혁개방을 시도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런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들이 있다. 부동여산, 의문대자, 수적천석, 유비무환 등이 그것이다.

'부동여산(不動與山)'이란 거대한 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안보를 다룰 때에는 확고한 자세로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는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안보에는 재수(再修)가 없다. 한번 실패하면 망국이다.

바둑 한수 물리듯 역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안보를 다룬다. 안보국방 정책에는 이런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부동여산의 안보태세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무력충돌을 근절하여 건강한 평화를 가져오며, 그 연장선에서 평화통일도 가능하게 한다. 김정은 정부가 무슨 이유로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온다면, 이에 대적하는 우리의 자세는 확고해야 한다.

'의문대자(倚門待子)'란 부모가 대문에 기대어 서서 집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자식이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 싸리문에 기대어 서서 자식이 회심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일삼는 북한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들이 언젠가는 더불어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동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야 하며,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는 이러한 정신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김정은 정부가 일단 개혁개방을 시도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도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란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뜻이다.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하는 사자성어다. 북

한의 붕괴를 부추기는 통일정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북한에게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변화를 위한 물방울을 쉽게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겹다는 이유로 또는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한다면, 결국 북한의 변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인내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익살스러운 의사들이 말하듯 “비가 오는 날이면 환자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걱정거리에 대해

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갑작스러운 통일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목표는 아니지만 대비해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통일기회가 새벽녘의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통일재원을 준비하면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나가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민주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쉽 없이 통일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것이 기로에 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다.

There has been a variety of speculations regarding the future of the Kim Jong-un regime. In almost every meeting, Kim questioned “improvements on the people’s economic conditions” and demonstrated his intent on incorporating elements of the market economy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through the 6.28 Policy. In addition, Kim Jong-un visited an amusement park, publicly linked arms with his young wife, and attended an American pop concert. This unconventional behavior has drawn the attention of many experts who theorize that he will pursue reform and opening.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experts who doubt Kim’s ability to escape the vestiges of the closed feudal social system, which had been consolidated by his grandfather and father, due to his occasional emphasis on the Military-first Politics. Some also predict that he will pay lip service to reform and open-door policies during the worst economic conditions or that his attempts will yield few concrete results. Accordingly, four adages are particularly valuable for the South Korean people’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unyielding like a mountain, waiting at the gate for the children’s return, water drops wear away stone, and preparedness forestalls danger.

The proverb “Unyielding like a mountain” (不動與山) illustrates our resolute attitude toward national security. Although the economy may have another chance to recover, national security can not afford such luxury. Should a state fails to maintain security, it will be destroyed. Such actions cannot be revoked, as when one plays the game of “Go.” Thus, respectable state leaders place national security as the highest priority in order to ensure all is completely safe. This is what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policy requires. Our firm and unwavering attitude enables us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prevent military conflicts, promote constructive peace, and accordingly unify through peaceful means. Even if the Kim Jong-un regime threatens our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 must remain resolute.

The adage “Waiting at the gates for the children’s return” (倚門待子) refers to the parents’ natural inclination to wait for their children to apologize, regardless of their spoiled behavior. Although North Korea is not always agreeable, South Koreans must perceive it as a country that is home to their separated brothers and sisters and strive for unification.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hould reflect this philosophy. If the Kim Jong-un regime attempts to adopt reform and open policies, then the South Koreans should be prepared to warmly welcome and support them.

“Water drops wear away stone” (水滴穿石) is an adage we must bear in mind in regard to change i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t indicates that an aggressive unification policy that aims to incit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is not one that

we should adopt. Rather, it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North Korea with the time and space for gradual changes. It also means that the trickling drops to evoke change should be constant. Should South Korea grows weary of maintaining its task and gives up, then neither change nor unification will come to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must endure all it can in order to promote the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The final proverb “Preparedness forestalls danger” (有備無患) is a Korean homonym that doctors jokingly used to say, “There are no patients on rainy days.” In fact, however, it warns us to prepare for worries that may be on the horizon. Sudden unification is neither South Korea’s objective nor preference, but it is an outcome that we must prepare for. Unless South Korea wishes to be caught in a vulnerable and unprepared predicament, it must plan for a potentially swift unification. While internally collecting financial resources and public support for unification, South Korea must externally continue to foster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support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equently, the South Koreans must bear in mind these four proverbs, as they watch North Korea stand at the crossroads.

북한주민에 희망을 심는 대북정책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that Plants Hope in North Korean Residents



손기웅 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Gi-Woong Son _ Director,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KINU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서독의 대동독정책과 우리의 햇볕정책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되었다. 통일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대립이 지속되면, 민족 간의 이질성은 커지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동포들의 고통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통하여 건너편 동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느끼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둘은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독은 동독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동서독주민들이 상호 방문할 수 있게 하였고,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방송·라디오·신문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협정을 통해 문화, 과학기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서독정

부는 동독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동독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서독과의 통일을 향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각종 목적의 방북과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었지만, 병들고 못 입고 못 먹는 북한주민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더구나 경제가 바닥을 치던 상황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 자금이 남한으로부터 벌어들인 것이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햇볕정책의 10년 동안 북한주민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인권이라는 가치는 사치스러운 남의 이야기였다.

현 정부의 원칙이 있는 대북정책은 정당하였다. 북한당국의 정치적 양보가 없이는 보상도 없다.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삶

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원칙은, 지난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에 뿌리를 둔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의 정책이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변화를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객 살해, 천암합 폭파와 연평도 포격 등 비인도적인 행태를 서슴치 않았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은 물론,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 핵폭탄 제조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자랑하였다.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사망하였다. 동독주민과 같은 위대한 결단은 아직 북한주민 내에서 찾을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정책방향이 옳고, 나쁜 쪽은 북한당국이니 우리의 길을 고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제는 북한당국이지만 우리가 대승적으로 한반도를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가? 유념해야 할 점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현실이다. 각종 지하자원 개발권,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 이용권 등의 권리를 하나씩 챙기면서, 거의 모든 북한의 생필품을 중국이 공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은 집안 단속에 매달리며 남북협력은 후순위위에 놓고 있다. 김정일에 비해 기반이 취약

하고 정통성이 부족한 김정은의 권력안정을 위해 중국은 김정은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권력의 3대 세습이 북한 정치권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통의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른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 삶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우주를 넘나드는 대명천지 21세기에 권력의 3대 세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국이 대안인지 남쪽의 동포들이 아군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우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우리의 동포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인권과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희망'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때는 그 누구도, 어떠한 외세도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The West German policy toward East Germany founded upon the New East Policy (neue Ostpolitik), provided much of the same basis for the Sunshine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f current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ersists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possibility of reunifying the two Koreas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low, the heterogeneity of the two Koreas and the pain of North Koreans under the rule of the communist country will only be accelerated. Therefore, the policies of West Germany and South Korea more or less pursue the same goals in terms of their willingnes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regime by increasing contact and making them realize what is right and wrong.

However, the two governments experienced very different outcomes. West Germany, in its talks with East Germany, enabled East and West Germans to visit each other, and East Germans were allowed to listen to, watch, and read West German broadcasts, radio, and newspapers. The two Germanys agreed to collaborate institutionally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in culture, science, technology and athletics. West Germany focused their efforts o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East Germans. The East German populace responded explosively, and they began moving forward the reunification process with West Germany.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sidents who have a lot of trouble finding food, clothes and medicine, in spite of South Korea's various and active exchanges with the North, including South Korean tours to the North's Geumgang Mountain and its investments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additio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ir experiments, even in the worst economic situations, made South Korea doubt its source of the finance, which seems to be South Korea. During the ten years South Korea implemented the Sunshine Policy, North Korean lives remained poor and painful, and the discussion on the value of human rights was luxury.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gains its legitimacy from the following principle: No reward without political concession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Looking back on the previous North Korea policy that turned out not to be helpful in promoting North Koreans' quality of life,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rinciple was the proper choice made.

However, the policy has not produced its intended results. North Korea refused to change, and did not hesitate to demonstrate aggressive behaviors, which included the killing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Geumgang Mountain, exploding of the Cheonan Navy Ship, and attacking of the Yeonpyeong Island. North Korea boasted not only of its second nuclear experiment openly, but also of its manufacturing capacity of the Uranium nuclear explosives which was developed after the Plutonium nuclear explosives. The lives of North Korean citizens have worsened. North Korean authorities is entirely responsi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Kim Jong-il died leaving North Korean lives in misery. The grand decision East Germans made is yet to be found in North Koreans. What c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 to cope with the North? Should the South stick to its policy, for the direction of its policy is right and the North is the one choosing to be wrong? If not, should South Korea modify its policy under the broad assumption that South Korea will eventually manage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keep our eyes open for the reality that China taking away our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China has been supplying almost all of the daily necessities to North Korea, securing its rights to develop various underground resources and use harbors at Najin and Chungjin.

Having been occupied with consolidating his position domestically, Kim Jong-un has pushed back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n his priority list. China will support Kim Jong-un for his domestic power stability because Kim's domestic foundation and legitimacy is weak relative to Kim, Jong-il. Along the process of the stabilization, China will attempt to maximize its influence on Kim, Jong-un and North Korea.

Inheritance of power over three generations might be accepted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circles. However, how North Koreans would react to the inheritance is a totally different dimension.

For South Korea, there is no other way than to return to its original set of mind. In other words, the South should pursue a policy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ir quality of life. South Korea should give them a chance to see the world around them by opening their eyes and ears to judge their current quality of life; to understand what power inheritance over three generations means; and to determine whether South Koreans are their friends or foe and to see if China is their only alternative to turn to.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approach North Koreans first so that they can feel the affection as one people.

Grounded in the spiri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must let North Korea feel it in their skin that their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are the issues of South Korea's best interest. This should make North Koreans realize that South Korea can mean 'hope.' Then, South Korea should patiently wait and watch the decision North Koreans make. When the time comes for the North Koreans to exercise the right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no one and no foreign power would dare intervene.

통일외교와 북한인권

Unification Diplomacy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한동호 _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Dong-Ho Han _ Research Fellow, KINU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예상대로 논의가 진행될수록 통일에 대한 양국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북아에서 미중경쟁이 가시화되고, 각국의 영토분쟁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는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때 이른 논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게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지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의 입장은 통일은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할 장기적 프로젝트이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국이 성공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비용을 산출하고,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통일 논의를 전개할 때 이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통일외교는 동북아 안보의 큰 틀 속에서 통일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 정부 출범부터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통일이 시대적 화두로 부각되어 왔다. 통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담론을 통해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일외교가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한반도 주변국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통일을 한국이 주도할 경우 평화적 방법이 아닌 무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약화된 북한 정권을 흡수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는 통일한국과 한미동맹 확대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중국 측 견해가 북중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바 크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통일외교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평화적 합의 통일이라는 점을 향후 더욱 강조해야 하며,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통일이라는 논리를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일외교의 주요한 기둥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 문제이다. 통일을 단순히 정부 간 합의의 산물이 아닌, 남북주민들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통일과정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인 안보적 관점에서 동북아와 한반도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시각이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한국의 통일외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여러 시민단체들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금지

와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외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히 이념적 성향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열쇠로 보아야 한다. 북한인권 아젠다는 향후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한반도 주변국 뿐 아닌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북한인권 논의와 한반도 통일 논의는 근본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cently, I had a chance to visit China and discuss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listen to the honest opinions of Chinese scholars about the issue. As the discussion progressed, differences of opinions from both sides about the reunification started to come out as expected. A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y, and territorial disputes increase, the reunification issue seems untimely for the current stage. As opposed to South Korea viewing the issue of reunification as an urgency, it is considered an uncertainty for the neighboring countries. China was not an exception. Chinese scholars regarded the reunification as a long-term project that South Korea should gradually pursue, and that it is too early to consider the matter seriously.

South Korea needs to give heed to the reac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when it pushes forward to reunify the two Koreas: working out the estimate of the reunification costs based on its successful economic capability and unwinding reunification discussions to fundamentally resolve North Korea's problems.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must provide a positive blue print from the aspect of Northeast Asian security. Reunifica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problems North Korea is facing emerged as an agenda when the current government launched. The government's will to proactively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has produced diverse discussions at different levels of society and has reinvigorated thoughts on the issue. However, current administration's unification diplomacy has not yet produced concrete results. Neighboring countries are still not quite sure about the reunification. China particularly is concerned about South Korea taking initiativ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Chinese strongly believe that South Korea at the helm of the reunification will involve military force rather than peaceful means. Moreover, China thinks that South Korea might absorb the weakened North Korean regime. China's concerns about the reunification originate from its perspective on equating a unified Korea to the expansion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Although China's perspective on Korean reunification is largely based on the uniqu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t could also be regarded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has not functioned effectively.

South Korea needs to stress further that its reunification policy is based on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addition, South Korea must set out a logical argument that reunification is the only solution to North Korea's fundamental problems. One major element of the policy can b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onsidering reunification in terms of the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citizens, not just government outcomes, can address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nd will be a vital element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Furthermore, neighboring countries' traditional security point of view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can be mollified by South Korea's human rights-oriented polic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pointed out sever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nd has put forth systematic solutions for them. In addition, domestic and foreign NGOs have cried for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Concentration Camp and the end to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not merely ideological inclination but a key issue in solving North Korean problem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genda will be a major means to receive support both from countries neighboring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n discuss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After all,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not help but be fundamentally connected t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국교회를 향한 두리하나 북한인권선언문

The Durihana's Declar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the South Korean Churches



김윤태 _ 사단법인 두리하나 이사
Youn-Tae Kim _ Director, Durihana

사단법인 두리하나(대표: 천기원 목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다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그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25명의 북한선교를 준비하던 천기원 목사와 그 동역자들이 조-중 국경 변방을 돌아보며 탈북자들의 고통스런 삶과 또한 그런 탈북자들을 받아 교회의 품으로 품어 돌보아 주는 조선족 동포들의 뜨거운 신앙심을 목격하게 되었다. 특별히 중국 변방에서 유리하고 방랑하는 어린 탈북청소년들(일명 '꽃제비')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 저리는 아픔과 안타까움에 울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1999년 10월 2일 두리하나가 태어나게 되었다.

두리 하나는 처음 설립이후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을 “탈북동포주일”로 지킴으로 북한인권, 특별히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에 힘과 노력을 다해 왔다. 금년은 특별히 두리하나가 탈북동포 주일을 지켜온 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런 뜻 깊은 해를 맞아 2012년 6월 3천여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천 송의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린 “제 10주년 탈북동포주일” 예배에서 두리 하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리는 북한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사)두리하나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드리는 북한인권선언문 전문이다.

한국교회를 향한 두리하나 북한인권 선언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가지는 인권의 평등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인권은 종교, 정치, 사상, 인종, 신분 등 어떤 것에 의해서나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당하거나 억압되거나 박탈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권에 대한 범죄는 인간 전체(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넘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우리는 천명한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북한의 인권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을 가슴 깊이 인식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희생을 드릴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남북간 민족의 분단과 대결의 상황 앞에서 겉으로 화해와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조차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네편과 내 편을 나눔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열하였던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하며, 아울러 ‘강도만난자’와 같은 형편에 있는 북한인권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그를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무관심했던 것과 또는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한다.

1.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특별히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권중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 입장에 앞서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전제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땅을 떠도는 재중 탈북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비참한 형편 가운데서 구출하고, 남한 땅에 이주해 왔어도 이 땅의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탈북동포들을 영접하여 그들의 영적

육체적 곤고함을 돌아보고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일로 인정하며, 이러한 이들의 처지와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을 “탈북동포주일”로 지킬 것을 한국교회에 호소한다.

1.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함과 이러한 복음은 신학적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일심협력해야 할 교회적 사명임을 믿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뿐 아니라 북한선교를 위한 사역자들과 단체들을 지원 육성하여야 할 책임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국가와 국가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대리하는 기관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을 믿는다. 특별히 국내외 탈북자들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족임에 우리는 국가가 이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내외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을 포괄하는 북한인권법안을 시급히 제정하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Durihana, led by Reverend Chun Ki-won, was organized by people who share the vision of Christianity that all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ave the rights bestowed by God. These people,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sh to share with the North Korean residents and defectors the God-given natural human rights to enjoy happiness. When Reverend Chun and his colleagues first visited the border area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y witnessed the arduous liv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lso the burning faith of ethnic Korean Chinese taking care of the defectors in the church. Especially, witnessing young North Korean children called ‘Kkotchebi’ wandering around the Chinese border area, Reverend Chun and his colleagues could not stop the tears at the sight of their painful and desperate situation. They remembered these words from the Bible: “Learn to do right; seek justice. Defend the oppressed. Take up the cause of the fatherless; plead the case of the widow.” Those who went on the trip and witnessed the miserable conditions these North Koreans are under decided to obey the words of the Bible and began to have prayer meetings. As a result of countless prayer meetings, Durihana came into being on October 2, 1999.

Since its establishment, Durihana has designated the last weekend of June of every year as “the Weekend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ived to defend North Korean human rights, especially the defectors’ rights. This year marks the meaningful 10th anniversary of the Weeken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commemorate this special year, three thousand South Korean Christians attended the service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Weekend for North Korean Defectors” held in Sungui Church in Incheon in June 2012. At the venue, the Durihana announced the Declar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Christians and churches in South Korea.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Declar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Durihana released to South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s.

Duribana’s Declar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South Korean Churches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Bible, we, as Christians, believe that all human being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e image of God in all human being has become a major source of the human dignity and universal human rights shared by all human beings. Thus, the human rights should not be violated, oppressed, or deprived, and people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religion, politics, thought, race, or social status, and etc. We proclaim that a crime against human rights is not just a crime against all human beings, but a serious criminal act against God who created people in his own image.

We, as Christians, acknowledge in particular that the situation regar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worse than ever. We appeal to the South Korean Churches to follow the spirit of the gospel like the high priests of God, which holds the heart of Jesus Christ who shouldered our pain. Accordingly, we should share the pain of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make every effort and sacrifice to get rid of the pain. Thus, we announce the following declaration.

1. Under the teaching of the Bible, “Serve one another humbly in love,” we repent our sins with sincerity. We have been ideologically divided along the physica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evered into progressive and conservative/our side and your side within the church. We have condemned, judged, hated, and been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addition, we have been indifferent to the desperat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just like the high priests or the Levites who had ignored the robbed Samaritans. Furthermore, though we were aware of the miserable situation in North Korea, we neglected to help the North Koreans.

1. Following the teaching of the Bible to “mourn with those who mourn, weep with those who weep,” we shall not neglect the pain and sickness of our people in North Korea whose right to life,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s threatened by hunger and sickness. We shall share their pain and practice the unlimited love of the gospel of the Christ in every way according to the pure spirit of the gospel prior to any thought or taking any political position.

1. Abiding by the instruction of the Bible, “Do not forge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and leave it fo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we shall rescu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children, who have been wandering around China after defecting North Korea. We feel that it is the mission of the South Korean churches to welcome North Korean defectors, whose lives remain similar even after the escapes to South Korea, and to take care of and fill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To be reminded of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South Korean church’s mission, we appeal to South Korean churches to keep every last weekend of June as the “Weekend for North Korean Defectors.”

1. We believ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shall be achieved through the gospel of the Christ who saved us from our sin and misery. This gospel is a mission of the South Korean churches, which should set aside th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wings of the South Korean churches and collaborate for North Korean missions. For this, we urge that South Korean churches should not only pay more attention to North Korean missions but also accept the burden of supporting and cultivating missionaries and groups for those missions.

1. We believe that states and their power are the institutions built to represent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to protect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including orphans, and widows from injustice. We believe that South Korea has a legal obligation to protect North Korean defectors inside and outside of South Korea because they are also South Korean people to be protected from injustice exercised by its nation. Thus, we urge that churches in South Korea pray and try their bes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urgently en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o protec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idents.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활성화 방안

Methods for Revitali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motion Movement



이애란 _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Ae-Ran Lee _ President, North Korean Food Institute of Seoul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에서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인륜적으로 인척인 남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미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2개월 후면 치르게 될 대선에 대통령후보로 나선 여·야의 대선주자들의 대선공약이나 정책가운데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고, 남한 정치계에서 북한인권을 들먹이면 인기가 추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소수의 양심적인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들이 적수공권으로 산발적인 인권개선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계속적인 소강상태로 말미암아 소멸직전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

박선영 전 의원의 단식투쟁으로 시작되었던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탈북자강제북송반대투쟁도 시간이 길어지고 특별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으며 언론의 관심이 식으면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제 중국대사관 앞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지만 새로운 이슈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또한 평범한 일상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은 인권개선이며 탈북자의 강제북송반대와 인권개선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시작이자 중심 고리가 되는 것이다.

2만 5천명의 탈북자들이 사지를 넘으면서 거쳐 온 탈북의 여정가운데서 당했던 혹독한 고통과 북송의 경험들은 인류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의 극치였으며 인권말살을 넘어 인간도살이라고 불릴만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수많은 사례와 구체적인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표 얻기에만 연연하며 8년간 보류되어온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불편한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인권 에 대한 관심도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통일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면 될수록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야의 대선주자들조차 표를 인식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19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는데 정작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고 가장 먼저 이러한 법을 통과시켜야 할 남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일반주민의 관심에 있을리 만무하고

민주화 투사, 인권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해외의 인권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떠나서는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없고 일부의 주장처럼 북한 정권과의 일방적인 남북교류와 남북대화만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한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통일의 기본 열쇠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집중과 참여만이 국가의 정책과 정치인들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고 통일을 위한 일보의 전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인권 알리기를 넘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그리고 활발한 대중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운동을 제안한다.



While the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s risen worldwide and the international networks movemen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South Korea, geographically closest to North Korea, shows little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ts works have been insignificant.

We can not find any new policy or alternatives for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pledge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December election. In fact, by mentioning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residential candidates will lose their popularity which is a strange phenomenon that only exists in South Korean politics.

Though a few conscientious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tizens with few resources get involved in sporadic campaign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few visible outcomes and responses drain the energy out of them.

The campaign against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former assemblyman Park Sun-young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dragged on for a long time with no concrete results and lost public attention without further press coverage.

Currently, only a few remaining people continue to manage the campaign routinely without new emerging issues and interest.

The key to resolving problems in North Korea is by improving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opposing to the repatriation of them. The promotion of their human rights can initiate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citizen's human rights.

The severe pain and repatriation experiences that 25,000 North Korean defectors went through in their process of escape from North Korea are deplorable and could even be called human slaughter rather than annihilation of human rights.

Despite numerous cases and specific testimonies, politician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ly pursue the interests of their own parties and more vote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for eight years, has not yet been passed.

As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eing acknowledged as a financial burden, more people started losing their interests in the issue and eventually, the interest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ill be lost as well. In short, the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unification are inseparable because the rise of people's attention to the former eventually will lead to that of the latter and vice versa.

However, in reality, even presidential candidates refrain from mentio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fear of losing their popularity. Now the 19th congress is in session, b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eems quite difficult to be pass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England, have pass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It is very strange that South Korea, the first country to propose such act, is neglecting to pass the Act.

If South Korean politicians do not pay attention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itizens will not either. In the reality in which democracy and human rights activists are exclusively involved in overseas human rights campaigns, resol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has a long way to go.

Reunification can not be achieved without resol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because South and North Korea's unilateral exchanges and talks alone cannot take care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human rights.

If we truly worry about the pain and sorrow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future, we should take an aggressive approach to resolv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as a prerequisite for reunification.

Only Korean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influence national policy and politicians and advance one step closer to the reunification. Thus, I would like to suggest diverse, people-oriented and cultural campaigns to promote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go beyond mere awareness campaigns.

다시 개막된 '노동당시대'와 북한인권 전망

Resuming 'The Era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Prospect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안찬일 _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Chan-Il An _ Director, World Institute for North Korea Studies

북한의 김정은 시대 과연 인권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 마디로 당분간 상징적 인권상황은 개선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지난 1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선군시대'가 막을 내리고 선당·선경·선민의 새로운 '노동당 시대'가 열린다고 하지만 3대 세습이란 최악의 정치제도가 존재하는 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은 당분간 요원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주로 북한인권 상황을 외부소식통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조사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변함없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은 2011년 자료를 분석해 지난 4월 발표한 인권

보고서(2011 Human Rights and Democracy)의 평가 내용과 비교해 올 상반기에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외무성의 소피 벤저(Sophie Benger) 공보 담당관은 7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영국 정부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인권 개선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에서 민주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헌법에 따라 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민주

당과 천도교청우당 등은 '우당'의 역할 외에 정당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2012년 봄 서울에서 열린 '유럽연합-한국 인권담화'에서 앨리스테어 워커(Alisdair Walker)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영국의 한 대학에서 발간한 '고문안내서(Torture Reporting Handbook)'를 한국의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제공해 북한의 고문과 인권 사례를 폭로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버마,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28개 인권우려 대상국(Countries of Concern)에 포함돼 있다.

3대 세습으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권력의 교체를 통해 '권위 가치'는 재분배되겠지만 아래로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분야에서는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이 소수 특권층의 시장 점유율로 나타날 경우 보통 주민들의 생존권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김정은은 당장 정치범 수용소의 축소 등 가시적 인권개선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임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초대 보위부장 김병하와 2대 이진수를 거치며 국가안전보위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행세하면서 북한인권 탄압의 진원지로 떠올랐었다. 따라서 3대부터는 아예 부장직을 두

지 않고 제1부부장 체제로 운영되어 왔지만 김영룡 제1부부장이 권총 자살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기 어려웠다.

지난 4월 노동당은 전 군 보위사령관이며 총정칙국 조직부국장인 김원홍 대장을 우동측 제1부부장 후임으로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하면서 국가 공안통치망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였다. 김원홍은 군인 중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성품에 속하는 엘리트다. 김정은은 체제의 실질적 후견자인 장성택이 인민보안부장에 전 북한군 작전국장 출신인 이명수 대장을 임명하는데 이어 김원홍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한 것은 군 위주의 위기 관리에서 벗어나 사회공안망을 통해 정치체제를 안전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은 체제에서 공개적인 총살이나 처형 같은 적나라한 인권탄압은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정착되는 과도기에 능력도 돈도 없는 다수의 '사회주의 고아'들이 먹고 입는 문제인 생존권에서 또 다른 인권의 희생자로 균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깊숙이 평성시장과 국경의 혜산시 등에 거지떼들이 몰려다녀도 당국이 마냥 방치하는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부사회의 지원 등이 북한 소외계층에 고르게 배분되고 질병과 재난으로 죽어가는 인민들이 없도록 북한인권 개선에 국제사회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How will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hange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n short, despite careful forecasts that there might be symbolic gestures of their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the new regime will not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Even if the 15 years of 'Sungunsidae' (the military-first policy period) has come to a close and a new era of 'Sundang' (Party-first), 'Sungyeong' (Economy-first) and 'Sunmin' (People-first) policy has begun,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ill be delayed for as long as three generations of succession persists.

Unfortunately, we usually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from foreign sources. The British government indicated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researched from April to late June 2012, are worse than ever with no further changes. Its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compared materials gathered in 2011 with the 2011 Human Rights and Democracy released in April 2012 and said no obvious changes had taken place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first half of 2012. Sophie Bengler, Senior Press Officer at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in her interview with Radio Free Asia on July 13, 2012, said that the British government would express its concern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various diplomatic channels.

North Korea claims that it revised its constitution in April 2011 to demonstrate its will to promote human rights and protects its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report, however, points out that it is far from North Korea's political reality. Even though North Korean authorities argue that it officially guarantees the free activities of democratic parties in North Korea, in fact everybody knows that the Korean Workers' Party controls every state activity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Chungwu Party of Cheondogyo do not play any official party roles.

Alisdair Walker, Political Counselor of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said that he provided civic groups and experts with the 'Torture Reporting Handbook' published by a British university at the European-Korean Human Rights Dialogue held in the spring of 2012. The report includes 28 'Countries of Concern,' including North Korea, Burma, Iran, Iraq, and Pakistan.

With the three generations of succession and the launch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value of authority' might be redistributed by exchanging political powers in some degree,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have appeared on the rights of underprivileged labors and farmers to live. If economic reforms result in the increased market share of the few privileged classes, the ordinary citizens' market share might worsen. Kim Jong-un might show the visible promotion of human rights by reducing the numbers of Political Concentration Camp right away. Following Kim Byung-ha, the first director of State Security Agency and the second director, Lee Jin-su, has wielded absolute power and became the source of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Because of this, the Kim Jong-un regime eliminated its director post and had the first deputy director operate the agency, but its vicious circle is hardly broken, as Kim Young-ryong, its first deputy director, shot himself to death.

Last April, the Korean Worker's Party appointed Kim Won-hong to a director of the State Security Agency as well as vice director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and former director of the State Security Agency to succeed Woo Dong-cheuk, the first vice director of the Bureau, to establish a new order within the state security network. Kim Won-hong is known as a military elite with a relatively warm personality. Jang Sung-taek, a guardian of Kim Jong-un regime, appointed Lee Myung-su, former director of the Operation Bureau, to a director of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Soon Jang appointed Kim Won-hong to a director of the State Security Agency. These actions indicate the Kim Jong-un regime's will to lead its political system safely through social security networks.

Therefore, the Kim Jong-un regime might refrain from explicit human rights suppression, including public firing squads or public executions for the time being. However, numerous 'socialist orphans,' with neither skills nor money, as well as other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can flock together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to establish market economies. In fac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obviou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imply neglect street beggars gathering together around the Pyongsung market and Hyesan City near the border. In this contex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focus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lest they die from illness or disasters, and foreign aid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neglected classes of North Korean society.

탈북단체들과 유관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Establishing Network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Organizations and Relating Civic Groups



김인실 _ 자유북한방송 실장
In-Sil Kim _ General Manager, Free North Korea Radio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정은 띄우기 선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20대라는 사실이

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그가 너무나도 빨리 북한권력의 핵심인물로 등장하고 있

다. 여기에 중국의 김정은에 대한 ‘러브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안착이 국제사회(?)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지켜보는 남한사회, 특히 탈북자사회는 북한사회가 곧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남한 내 탈북자들은 3대째 독재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정권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 이상의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사회정착과 더불어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정권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민운동을 조직적으로 펴고 있다. 남한 내에는 대략 30여 개 탈북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사회 각계각층에서 몸을 담았던 탈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현 북한 실권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정권을 반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 개선과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사회 내 탈북자단체들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이다.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탈북자단체들과의 연대는 향후 북한인권과 북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탈북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아직까지 의존적 위치에 있다는 점과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정치적 입지가 좁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내부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다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내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다. 탈북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내부 정보망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을 합칠 수 있다면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민주화 운동은 보다 탄력을 받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민주화, 나아가 남북통일을 위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탈북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남한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며 북한민주화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음은 수렴된 의견과 정보를 학문적 차원에서 보다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시민단체도 하나의 유기체이므로, 유기체는 그만의 가치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사회와 시민사회를 조직적으로 단결할 수 있어야 하고 어디까지나 매개체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치체제의 제도적인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즉 국내외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나아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것이 법제화 되었을 때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민주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탈북자단체와 국내외 시민단체가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이다.

역사를 다시 쓰는 현장에는 언제나 역사의 역경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으며, 오늘날 ‘지옥’(북한)을 경험하고 ‘천국’(남한)을 맛본 탈북자들이 그 현장에 서 있다. 하지만, 북한의 참상을 목도한 탈북자들이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종말에 이르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탈북자들은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무명의 존재로 기억될 것이고 북한을 떠난 ‘변절자’로, 그리고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으로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탈북단체들은 국내의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하여 탈북자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북한 문제를 체계화하여 공론화하는 가운데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은 높은 사명감과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탈북자사회에 도출된 문제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강

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북한내부 동영상 해설을 비롯한 14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와 의식전환을 위해 하루 2~5시간동안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0일에서 20일까지 탈북단체들과 연대하여 “자유통일 국토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탈북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oday, North Korea engages in propagating Kim Jong-un with full force. Even though Kim is only in his twenties with no strong presence, he has emerged very rapidly as a key person in the North Korean power structure. China's attention to Kim shows that his regime is already accepted as an accomplished fac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particular, express their expectations of dramatic change in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and their anxiety about it at the same time.

North Korean defectors need to break free of their passive attitudes and negative opinions toward the third generation dictator regime of Kim Jong-un and show more meaningful action.

Several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raising their voice against the injustic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 various civic movements to promote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sidents since they settled in South Korea. There are about 30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working in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mostly consist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different sector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Most of them are more or less critical of the current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derive their mission from opposing the regime,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achieving North Korean democracy. Meanwhile, North Korean society or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have a very important mission – networking with domestic and foreign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tworking with these civic groups is a prerequisite for reali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ts democracy from now on.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Their position is too narrow to have impact on policy changes and the defectors still remain dependent on South Korean society. However, they have the advantage of relatively direct access to the inner North Korea. This is possible because mos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heir own network inside North Korea. If it is possible to combine the network of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with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domestic and foreign civic groups, it will enhance the campaign to promot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achieve great accomplishments.

What can be the fundamental ro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to promot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hieve democracy and advance North and South Korean reunification?

First of all, they should aim to promote the soci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Then they

should pursue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democracy in North Korea, and smooth and peaceful North and South Korean reunification.

Then, they should make an effort to systematically organize opinions and information for academic purposes and distribute them widely. Civic groups, as a kind of organism, need their own value and meaning to demonstrate their own reason of existence clearly.

In addition, they should cooperate systematically and faithfully play a mediating role.

Finally, they need to pose a certain extent of influence on systematic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political system. In short, they must try to influence domestic and foreig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legal grounds, so that their enactment stimulate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t is high tim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exercise practical influence on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at Saenuri Party has proposed.

In the field of history making, people who already have experienced historic hardships exist. Currently,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ose people who experienced 'hell' (North Korea) and 'heaven' (South Korea). However, if defectors, who have witnessed the miserable plight of North Korea, just wait for the end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do not play any active role in helping suffering North Korean residents, they will lose their place in people's memories and only be known as 'betrayers' who deserted North Korea and 'aliens' living in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and domestic and foreign civic groups should consolidate their networks and ally themselves to collect demands and systematize those issues to publicize them. Achieving these goals require full commitment to the mission and relentless efforts to draw out specific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Free North Korea Radio is scheduled to air shortwave broadcasting to North Korea for two to five hours to inform North Korean residents and transform their consciousness, including explanations about videos from inside North Korea and 14 main programs to illuminate domestic human rights situations. It is scheduled to hold "Grand Korea Traverse for Free Unification" from October 10 to 20, 2012 to make alliance with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This event will be a chance to consolidate network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express North Korean defectors' desire for reunification, and draw national attention and support for the reunified Korean peninsula.

라디오와 TV로 북한을 바꾸자

Let Us Change North Korea with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이광백 _ 자유조선방송 대표
Kwang-Baek Lee _ President, Radio Free Chosun

북한주민은 고통스럽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수백 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지금도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처럼 살고 있다. 사실은 2천 3백만 명의 전 주민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고 있

다. 남한 국민은 불안하다. 천안함이 두동강 났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다.

이 모든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은 북한의 독재정권이다.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개혁개방과 민주화로 나아갔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안으로는 북한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파괴하고, 밖으로는 무력으로 동포를 위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주민을 굶주림과 폭력의 고통에서 구해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적 원인이 북한 정권의 정책을 바꾸거나 북한 정권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정책이나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외부 압박이다. 북한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고립과 압박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은 고립감을 느끼지 못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주한미군을 중국 국경까지 올려 주둔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약속도 필요하다. 그래야 중국이 대북 압박에 대한 소극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부 압력이다. 북한주민이 북한정권을 압박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살 길은 개혁개방 뿐'이라는 생각을 북한주민 속에 널리 퍼트려야 한다. 북한 내·외부 소식, 개혁개방과 민주화의 방향, 외부 문화를 라디오와 TV 전파에 실어 북을 향해 보낸다면 북한주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대북방송은 북한 정권의 변화를 내부에서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대북방송이 활성화되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반대하고 나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천안함 사건 직후에 한번,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에 한번 대북방송 지원 문제가 일부에서 거론되긴 했으나, 제대로 토론 한번 못해보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도 대

북방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05년 언론재단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외부 방송 실태를 조사했다. 응답자 가운데 9.8%가 북한에서 '매주 한번 이상 외부 방송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북한주민 2천 3백만 가운데 성인인구를 천만 명이라고 본다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외부 방송을 듣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탈북자 대상 조사였으니, 실제 청취율보다는 더 많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절반만 계산해도 50만 명이다. 철저하게 외부와 통제된 사회에서 50만 명이 목숨을 걸고 외부 방송을 듣고, 가족이나 친구와 그 정보를 나누고 있다. 2005년 이후 대북방송을 듣는 북한주민들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의식을 바꾸고, 북한 사회를 바꾸는데 외부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도 국제정치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방송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송출을 시작한 남한의 민간대북방송사들이 방송을 제작하고 전파를 송출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도 미국의 국무부가 지원하고 있다. 일부 대북방송사들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미 국무부의 지원으로 방송 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바꾸고 북한사회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방송을 지원한다면, 24시간 라디오와 TV방송이 가능하다. 외부 방송을 듣는 북한주민의 수를 수백만 명으로 늘릴 수 있다. 북한주민 스스로 독재정권을 민주정권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대북방송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통일정책이다.



North Koreans live in agony.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died of starvation in the 1990s. Currently, twenty thousand residents are detained in Political Concentration Camp, living in desperate conditions. South Korean residents feel insecure. The Cheonan Navy Ship was broken into two parts and Yeonpyeong-do was attacked by North Korean missiles.

All these tragedies originated from the North Korean dictatorial regime. If the North Korean regime had admitted the failure of socialism, reformed, opened the country, and democratized, these tragedies would have never happened. Refusing change and maintaining its dictatorial regime through extreme violence means that North Korea cannot help but threaten life and living of North Korean residents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task of this era is to save North Korean residents from the pain of starvation and violence and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To solve this problem, its fundamental cause must be addressed by changing the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To do that, we need two factors.

The first is external pressure. It is important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realize that it cannot maintain itself unless it chooses reform and opening over policies of containment and oppression. Chinese cooperation is essential in this process. If China does not cooperate with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be isolated. If the North Korean regime is demolished, it is necessary for the U.S.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to avoid the border of China. Otherwise China will not be willing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he second is internal pressure, i.e., North Korean residents opposing their regime. It is important for residents to adopt the idea that 'the only way for North Korea to survive is through reform and opening.' If we broadcast internal and external news about North Korea, the direction of reform and opening, and democracy, as well as external culture on radio and TV communications to North Korea, their thoughts will change.

Broadcasts to North Korea are an important means to exercise pressure to change the North Korean regime. However, this option cannot be further discussed, as some politicians objec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upport of it, arguing that 'it might aggravate the North Korean regime.' Government support of broadcasting was discussed right after the Cheonan Navy Ship incident, but there was no further discussion of the issue.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ies of South Korea have all maintained passive attitudes toward it.

The Korea Press Foundation conducted a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ir experience of receiving news broadcasts from outside North Korea in 2005. 9.8%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listened to foreign broadcasts more than once a week.' Given the adult population is 10 million out of the total 23 million, almost 1 million people are estimated to have received foreign broadcasts. The survey taken by North Korean defectors may be greater than the nationwide rating. However, half of this estimated rating is five hundred thousand. In this completely isolated society, five hundred thousand people risk their lives to receive foreign broadcasts and share that information with friends and family members. Since 2005, there have been continuous increases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s receiving foreign broadcasts. It shows that foreign broadcasts can become an important tool in changing North Korean society.

The United States, a countr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understands this point clearly, and has pumped millions of dollars into broadcast programming to North Korea in order to bring about change. The U.S. State Department has provided financial support which enables South Korean broadcasting companies for North Korea to produce programs and send them to North Korea. Thanks to this financial support and devoted staff, some of the broadcasting companies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time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programs.

However, this is not enough to change the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society.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 these broadcasting companies, they can transport their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24 hours a day.

In that case, mill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would be able to receive foreign programs. North Korean residents themselves can make miracles happen and transform the dictatorial government into a democratic one.

Thu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olicy for unification that we can practice now is the full support of broadcasts to North Korea.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 정책

The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이무성 _ 명지대학교 부교수
Moo-Sung Lee _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 정책은 1995년 북한을 강타한 대 홍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엄청난 홍수 피해를 겪었던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했고, 인도적 지원으로 대응한 유럽연합의 접근은 실효성이 있어 보였다.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던 유럽연합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인도적 지원으로 시작되었던 북한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근원적인 경제 체제 개선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그 결과 대북한 지원 및 원조를 위한 3천 5백만 유로가 북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채택되었다.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되었다. 정치대화나 인권대화를 통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 개선 노력이 그 대표적인 일례이다. 1998년에 시작 된 정치 대화는 2001년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수교를 전후 하여 더욱 탄력을 받았다. 특히 2001년 5월 유럽연합 의장국 대표인 펠손(Persson)과 고위대표 솔라나(Solana) 및 집행위원 패틴(Patten)으로 구성된 트로이카(troika) 방문은 북한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데 필요한 대화 채널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트로이카 방문 후 제 1차, 2차 인권 대화가 개최되었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되어, 정치 및 인권 대화로 계승 발전된 유럽연합의 개입정책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북핵 사태가 그 대표적 돌발 변수였다. 북핵 사태 이후 대북지원은 무조건적

지원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되기 전까지는 대대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정치대화 및 인권대화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양자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그 한계성을 인식하여, UN과 같은 다자주의 틀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2003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59차 유엔인권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고, 그 후 유럽연합의 주도 속에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인도적 지원, 직접 대화 그리고 유엔 결의안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 속에서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 정책은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인권 함양이란 보편적 규범을 확산하기 위해 대화와 다자주의적 개입을 선호하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선택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적 재재나 무력을 통해서도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반 한 규범적 접근법은 기존의 미국 등과 같은 이들이 펼치는 강경책과는 분명히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불신과 그로 인한 불통의 관계는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북핵 사태와 같은 외부 돌발 변수는 남북한의 관계를 경색시키고, 정치 및 인권 대화의 종단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양자 대화의 한계를

인식한 다자주의적 접근법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대화를 통한 개입 정책은 북한 내 인권 함양을 위한 제도 및 의식의 전면적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보편적 규범만을 강조한 접근은 강제력 부재로 인한 유럽연합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차선책

이며,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점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경제 제재나 대화 단절 등의 강경책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기지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싶다.



The European Union (EU) established its polic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fter the heavy flood in North Korea in 1995. North Korea, having suffered tremendous damage from the flood, was in dire need of outside help. The EU's approach to North Korea through humanitarian aid seemed to be effective and eventually enabled the EU, far from any strategic interest in North Korea, to access the country. As time has gone by, the EU's relationship to North Korea has evolved from providing humanitarian aid into more fundamental discussions about improv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s a result, the EU decided 35 million euros in aid for North Korea in 'Country Strategy Paper,' which set out its strategic framework and objectives for technical assistance in North Korea.

With the humanitarian aid, the EU has made variou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ne representative example is its talks with North Korea on politics and human rights. The EU's talks with North Korea started from 1998 and accelerated before and after establishing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2001. In particular, the troika visit led by Goran Persso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Javier Solana, high representative for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the EU and Chris Patten, commissioner for external rela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greatly contributed to opening the necessary channels to deal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fter their visit, the first and the second human rights talks were held, marking a turning point for the EU in dealing directly and independently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affairs.

However, the EU's engagement policy, which started with its humanitarian aid to North evolved to its talks with North Korea about politics and human rights issues, often faced obstacles. One unexpected factor wa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ince then, the EU has taken a position that it would not support unrestricted aid to North Korea and has postponed aid until there are some successful negotiations about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ven though the EU did not stop its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it recognized the limitation of the talks and attempted to bring up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a multilateral framework. In this context, a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proposed in the 59th U.N. National Assembly held in Geneva, Switzerland in April 2003. Since then, the EU has taken an initiative to adopt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every year.

The EU's polic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demonstrates two opposing perspectives in its dealing with humanitarian assistance, direct talks and the U.N. resolutions. There is concern about effectiveness of the EU's strategic decision preferring conversations and multilateral engagement to spread universal norms and promote improvements of human rights. The EU's policy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It does not advocate the existing normative approach attempting to sol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hrough either economic sanctions or military power. This approach seems to be reasonable because distrust and its consequence, miscommunication, do not help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re might be unexpected external factor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hat could str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esult in termination of talks on politics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multilateral approach is often said to be ineffective, despite its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bilateral talks. In fact,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engagement policy through conversation does not lead to any comprehensive institutional or conscious change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onsequently, the emphasis on universal norms became the second alternative for the EU because of the lack of enforcement and doubts about its effective resul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employing wit and patience in communication in tandem with persuasion is more useful than economic sanctions or outright cessation of talks in dealing with sensitive issues such as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 사회의 정치적 종교성

Political-Religious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Society



류인수 _ 통일연구원
In-Soo Ryu _ KINU

북한은 역대 공산주의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폐쇄적인 '정치적 종교'의 형태를 띤 사회다. 다른 공산국가들의 종교정책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다른 세계관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강력한 종교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사회의 유일한 정치적 종교사상인 주체사상은 국가적 영웅 '김일성'에 대한 숭배를 기초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강조한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사회를 열린사회와 닫힌사회로 나누고, 집단유지만을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도덕을 '정적종교'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닫힌사회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즉 지성의 작용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현상들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다. 북한사회 또한 그 닫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첫째, 북한사회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집단적 사상을 강조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의심을 막는다. 나는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사람이다' 라는 말 속에는 절대적인 연대감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도덕적 힘이 존재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 북조선만의 '이상적 사회'를 향한 갈망은 결국 민족주의적 우월의식으로 변질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상적 사회가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해치

지 않도록 고민하는 데 작용해야 할 이성은 모순되게도 전체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둘째, 북한의 주체사상이 만들어낸 새로운 '영생'의 개념, 즉 '정치적 생명'은 죽음까지도 초월한다. 정치적 생명은 당과 수명을 위해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한 사회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설명된다. 특히, 이러한 개념은 김일성의 존재감을 그의 사후에도 성공적으로 지속시켰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육체적 아버지가 한번 아버지면 영원하듯이, 민족, 만민의 아버지인 김일성은 죽어도 그들의 아버지였다고 했다. 김일성은 그들에게 이미 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인간적 '신'이었다. 따라서 그의 강력한 신적 영향력은 그의 아들 김정일을 거쳐 현재 손자 김정은까지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사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반항적 무리들을 잠재우기 위해 '공동의 적'을 만들었다. 북한의 절대적 사상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이는 제국주의적인 반동분자로 몰렸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거나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외부의 모든 정보가 차단된 채, 생활총화를 비롯한 반복적인 사상훈련과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는 개인의 삶 모든 영역

에서 국가의 사상에 습관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남한을 비롯해 민주화를 이뤄낸 수많은 국가의 시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상의 자유라는 권리를 이뤄나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러한 자유를 알지도 못한 채 평생을 전체주의적 사회체제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상의 자유화를 겪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던 이들은 북한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전체주의적 환상 속의 조국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제

전환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사상의 자유를 스스로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은 정체성 혼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종교와 북한이탈주민의 세계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 이는 북한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여, 북한이탈주민과의 평화로운 사회적 공존, 즉 미래의 통일한국의 새로운 존재방식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이 글은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프랑스고등연구원) 종교사회학 석사논문(류인수, 북한이탈주민과 종교 Les réfugiés nord coréens et la religion, 프랑스 파리, 2012)을 요약, 재편집한 것입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powerful and closed political religious society which has ever existed among communist countries. North Korea denies the presence of other perspectives, while other communist countries' policies toward religion were comparatively mild. The only ideology of North Korea, Juche ideology, emphasizes the totalitarian system of thoughts and lifestyle in idolizing the national hero, Kim Il-sung.

The French philosopher Henri Bergson distinguished closed and open society, and defined "static religion" as social morality which represses the people to maintain the community status quo. Bergson explained that a closed society tries to defend itself against 3 factors that can bring about change in the society. These defensive actions relate to the exercise of intelligence, the representation of the inevitability of death, and the unpredictability of social situations. North Korea constructed its own defensive system to maintain the closed society.

First of all, North Korean society blocks individual thoughts and doubts by emphasizing group consciousness. When North Koreans introduce themselves and say "I am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 is an absolute moral energy and a strong sentiment of solidarity. This desire to create an ideal society, which ordinary North Korean citizens aspire to construct without any knowledge about the outside world, has become a consciousness of nationalist superiority and assures increased social power. Thus, rational thinking, which should analyze their ideal society, is replaced by a paradoxical devotion for totalitarianism in the minds of ordinary North Korean citizens.

Secondly, Juche ideology created a new concept of eternal and political life, which transcends death. Political life is given to a person who has died as a hero for the party and the great leader of the state. This is demonstrated through the memorization of individuals as social heroes that live eternally. This concept makes the presence of Kim Il-sung continue to live in people's minds successfully even after his death. According to a North Korean defector, Kim Il-sung, the father of North Korean people and all people will always be their father even after his death. To most North Koreans, he became a neo-human god from living the most powerful political life in the world. Thus, for North Korean people, his powerful and sacred influence bestows legitimate ruling authority to his son, Kim Jung-il, and his grandson, Kim Jong-un.

Finally, North Korean society created common enemies to defend itself against the unpredictable social rebellions. Those people who oppose the absolute ideology of North Korea receive the penalty of being sent to Political Concentration Camps or face public executions as imperialist reactionaries. Moreover the imbedded systems of repeated ideology education and surveillance reinforce habitual obligation to suspect those around them.

Citizens of various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maintained democratization and freedom of thought for a long time. In contrast,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lived the majority of their lives under the political-religious social system, experience sudden personal secularization. Thos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owing much to the economic plight need time to objectively understand their fatherland as a totalitarian fantasy.

Changing a longstanding belief or way of life is confusing and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overcome their stress of adapting and to learn how to enjoy liberty and freedom of choi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share the problems with them. Furthermore, more research is required on the political religion in North Korea and the effect it has on the ordinary North Korean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perspectives. It is very important to deeply understand North Koreans' systems of thought in order to find a way of social coexistence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a new way of being in unifie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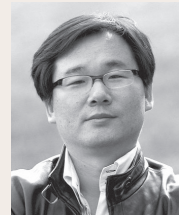
* This article is summarized and reedited from a master's thesis of sociology of religion in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In-soo Ryu, Les réfugiés nord coréens et la religion, EPHE, Paris, 2012).

●●●● 협의회 소식 (Council News)

회원기관 활동 (Member Bodies Activities)

〈기독교사회책임〉 북한인권 활동보고(2012. 8~9월)

Christian NGO's Activity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2012. 8~9)



김규호 _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Kyu-Ho Kim _ Secretary general, Christian NGO

1. Simultaneous Protest Against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held in 48 Cities of 37 Countries in the Worl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Christian NGO held the 'Global Simultaneous Protest Against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here were 800 people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450 people in front of the Chinese consulate in Busan and 400 people in front of the Chinese consulate in Gwangju, a record-breaking event marking the most people to ever participate in the history of simultaneous protest. In addition, these protests also set a new record for simultaneous protest in the most countries and cities.

2. The Press Conference of Lee Kyu-ho, a Former Chinese Public Security Officer, about his Testimony on the Chinese Public Security'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nd Its Torture of South Koreans

At 2 p.m. on August 1, 2012, Christian NGO called a press conference for Lee Kyu-ho, a former Chinese Public Security Officer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in Hyoja-dong, Seoul, South Korea. Lee, a 48 year-old ethnic Korean Chinese Police Officer from Shenyang, China, repented for his inhumane actions in search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working at Xita Police Station in Shenyang beginning in August 1995. He gave an official apology for his wrongdoings. He testified that the electric torture of recent detainee Kim Young-whan, suspected of being a spy by Chinese authorities, is actually inflicted on South Koreans. The Christian NGO, along with Refugee pNan, is assisting his refugee applica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his persecu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after returning home.

3. The Campaign for Reverend Jeon Jae-gui Detained in China for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was a protes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hristian NGO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at 2 p.m. on August 14, 2012, calling for the release of Reverend Jeon, who was arrested by the Chinese Public Security on charges of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Jeon is a 51-year-old Reverend who belongs to Busan Hanaro Presbyterian Church led by Reverend Lee Jae-woo. Reverend Jeon has worked for ethnic Korean Chinese since 2010 and happened to meet five North Korean defectors whom he first thought ethnic Korean Chinese in March 2012. Reverend Jeon was unable to deny their earnest requests and provided shelters as well as engaged in other relief activities. He was arrested in the Harbin Airport after his visit to Korea in mid-June 2012 and has been detained at the detention facility in Yantai Shandong for more than 36 days.

해외기관 방문 (Overseas Institutional Visits)

- 손기웅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2012년 7월 30일 워싱턴 미국 국무성을 방문하여 로버트 킹 대사를 만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금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미국의 NED와 공동으로 개최할 “유럽북한인권 포럼”(International Forum on North Korea)에 대해 설명하고 MaryKay L. Carlson, Daniel J. Tikveart, Aloysius M. O’Neill III, Micah L. Watson, Jacob K. Choi, Jaime Michelle Oberlander, Christina Li 등 미 국무성의 한국 및 북한전문가들과 한반도 및 북한의 정세에 대해 토론하였다.

Gi-woong Son, Director of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visite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n July 30, 2012 in order to discuss bilateral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 Ambassador Robert King,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Director Son also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Forum on North Korea” in London this coming November, which will be co-hosted by KINU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nd held discussions about the conditions in North Korea with Korea specialists MaryKay L. Carlson, Daniel J. Tikveart, Aloysius M. O’Neil, Micah L. Watson, Jacob K. Choi, Jaime Michelle Oberlander and Christiana Li, among others.



- 손기웅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2012년 7월 31일 워싱턴의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를 방문하여 Greg Scarlatoiu Executive Secretary General과 만나 북한인권 관련 통일연구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HRNK가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는 북한인권회의에 통일연구원도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After his visit to the U.S. State Department, Director Son met Greg Scarlatoiu, Executive Secretary General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in Washington, DC on July 31, 2012 in order to discuss cooperation between KINU and HRNK. KINU also agreed to participate in a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ference that will be held in Los Angeles this October.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김수암, 이규창, 조정현, 한동호 박사는 금년도 연구과제인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수행차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를 2012년 7월 방문하여, 26일 퀸즈랜드대 보호책임 아태센터(APC R2P)의 노엘 모라다 소장 등과 R2P 관련 국제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27일에는 그리피스대 아시아연구소(Griffith Asia Institute)를 방문하여 세계적 R2P 전문가인 알렉스 벨라미 교수 등과 R2P 발전 상황 및 동 원칙의 한반도에의 적용 가능성과 양 연구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Doctors Soo-am Kim, Kyu-chang Lee, Jung-hyun Cho and Dong-ho Han from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visited Australia this past July in order to conduct research on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In Brisbane, there are two prominent research centers that specialize on the R2P principle. On July 26, they visited the Asia-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C-R2P) a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discussed the general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with Executive Director Dr. Noel M. Morada, Outreach Director Ms. Sarah Teitt and other researchers. On July 27, they also visited the Griffith Asia Institute and met several distinguished R2P experts and refugee, including Professor Alex Bellamy, Dr. Sarah Davies, Dr. Luke Glanville,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Professor Andrew O’Neil. They discussed not only the R2P principle but also its specific applicability to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y deliberated the promotion of their mutual cooperation in regard to R2P and other relevant research field.



한반도 평화정착·북한·통일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통일연구원은 관련 분야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The Leading Think-Tank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With special expertise in peaceful settlement of longstand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nd unification, KINU has contributed to
laying the foundations for de facto unification through basic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의 인권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북한이탈주민 및 난민대책 연구,
이산가족, 남북 억류자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공동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Th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collects information and materials related to matter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umanitarian aid toward the
North, and inter-Korean humanitarian matters such as separated family members, abductees and POWs.
The Center also conducts research on policy development and has published the annual white paper analy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he Center maintains a wide network of contacts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actively performs collaborative
research and activity rel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matters.